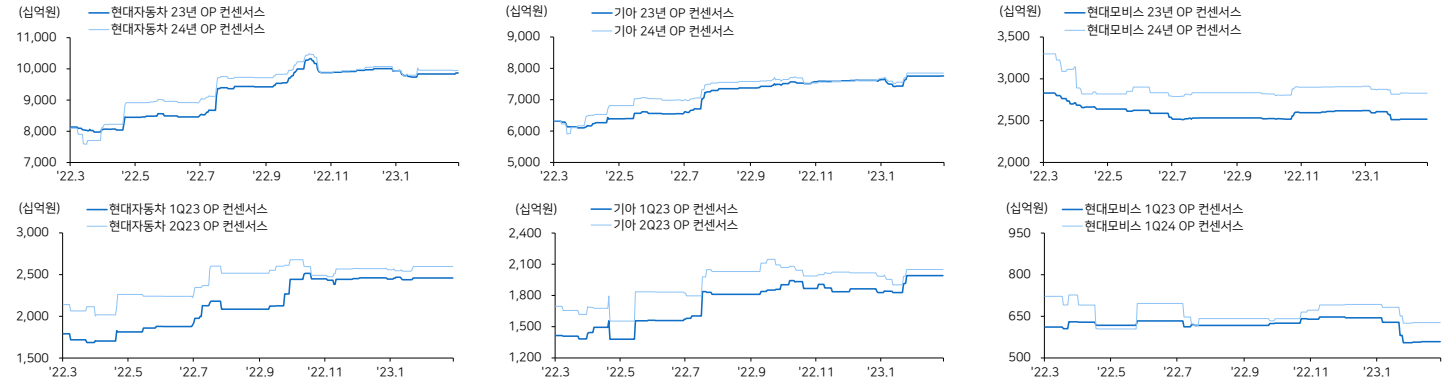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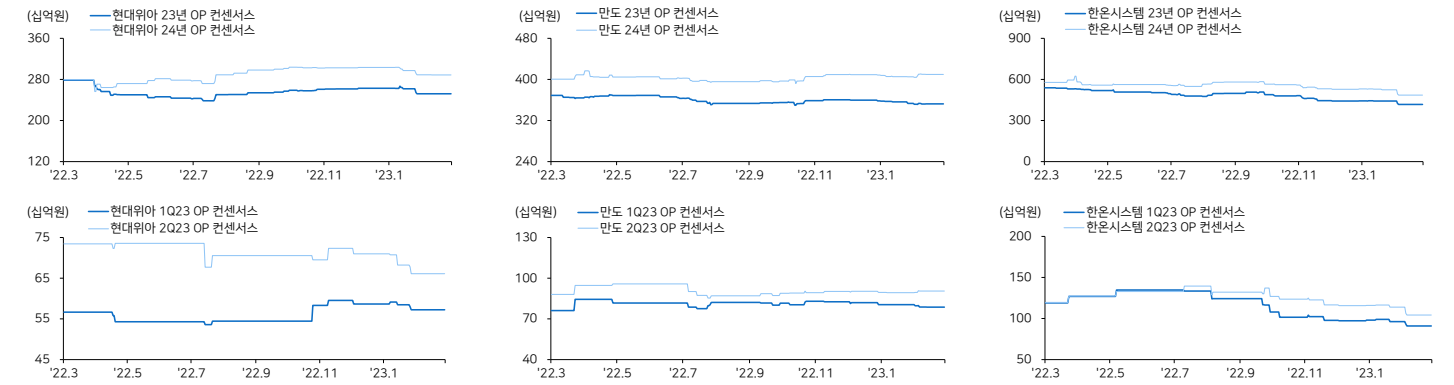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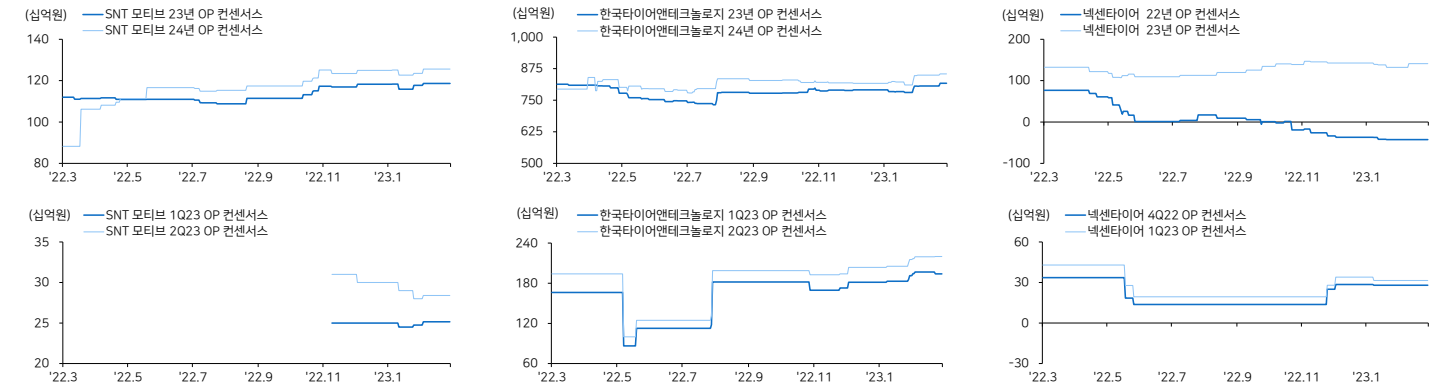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IT분야 대규모 경력채용...SDV전환' 인재 확보 (연합뉴스)

현대차는 15일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ICT본부 전 부문에서 세자릿수 규모의 IT분야 경력직 상시 채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5년 까지 모든 차량을 SDV로 개발한다는 현대차그룹의 비전에 따라 IT 인재를 확보하려는 취지

<https://bit.ly/3JG3Co0>

폭스바겐, 3500만원 이하 전기차 'ID.2울' 첫 공개 (매일경제)

폭스바겐이 약 3,500만원 이하로 가격이 설정될 중저가 소형 전기차 ID.2울 컨셉카를 공개. WLTP기준 주행거리는 450km이며, MEB엔트리 전용플랫폼 기반. 출시 시점은 '25년이며, '26년 출시 계획인 소형SUV자랑 가격 목표는 2만유로를 목표.

BMW cautiously optimistic on 2023, EV targets ahead of schedule (Reuters)

BMW는 기존 목표였던 2030년보다 이르게 EV 생산 판매 5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 '25년 신차 판매의 1/4, '26년 1/3을 BEV로 달성할 것으로 전망. 또한 '22년보다 높은 성장률으로 '23년 8~10% EBIT margin을 전망함.

<https://reut.rs/3YkLpVb>

Japans' workers get biggest pay rise in decades as inflation surges (Reuters)

토요타를 포함한 일본 대기업들은 기시다 총리의 생활비 부담 저감을 위한 임금인상요구에 따라 연례 노동 회담에서 25년만에 가장 큰 급여 인상 5%에 합의. 올해는 일본 전체 주요 자동차가 노조 요구를 완전히 수용한 최초의 사례라고 언급됨.

<https://reut.rs/3JjWYLM>

K-배터리, 인터배터리서 LFP 선호탄...신기술 개발도 가속 (연합뉴스)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2023'에서 국내 배터리3사가 차세대 배터리 기술과 함께 저가형 모델인 LFP 배터리를 공개. SK온은 파우치형 전기차용, LG에너지솔루션은 ESS용을 공개, 삼성SDI는 LFP 개발을 공식화.

<https://bit.ly/3Lr7pXq>

중국 작년 신에너지차 리콜 121만대...31% 급증에 역대 최대 (연합뉴스)

지난해 중국에서 부품 결함 등으로 리콜된 신에너지차(BEV/PHEV)가 121만대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 전년 대비 31.5% 급증한 것으로 알려짐. 이중 OTA로 리콜을 실시한 차량은 88.7만대로 73%를 차지.

<https://bit.ly/3YfPWHV>

Porsche goes counter to industry with planned price hike (Teslarati)

포르쉐는 곧 출시될 모델 Macan EV, Cayenne EV 등의 가격을 10~15% 대폭 인상할 것이라고 밝힘. 지난 실적발표에서 CFO에 따르면, 중기적으로 17~19%의 EBIT Margin 목표를 세웠으며 ICE BEV parity 도달이 중요하다고 언급.

<https://bit.ly/3mUeUC>

Tesla Full-Self-Driving Beta v11 is coming this weekend, if you believe Elon Musk (electrek)

이번 주말 Tesla FSD Beta v11의 화이트 릴리즈가 예정되어 있다고 일론 머스크가 언급. Autopilot과 고속도로 스택을 병행한 싱글스택이 병합된 새로운 버전이기에 주목. 지난해 일부 배터리테스터에게 v11 버전이 사전 릴리즈됨.

<https://bit.ly/3ZPQPVL>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 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